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

- 손창섭 장편소설『삼부녀』를 대상으로 -

김세준*

<차 례>

1. '자유의식'과 가족이데올로기
2.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의 해체 및 재구성
3.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 그 잠재성
4. 가족이데올로기 재구성의 회귀성
5. 손창섭의 도덕적 합리성과, 자유의식

【국문초록】

손창섭의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전유는 그의 자유의식을 보여주는데, 특히『삼부녀』는 도일 전 마지막 작품으로서 한국 사회에 작가가 던지는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자유의식은 주체가 보여주는 '관계'의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형상화한 인간관계의 양상을 살펴볼 때, 손창섭이 지닌 자유의식의 구조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삼부녀』의 가족 관계는 해체와 재구성을 겪게 되는데,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자유계약'이다. 이는 혈연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맹

* 건국대학교 현대문학 전공 박사수료

목적 사랑을 중심으로 한 기존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상상적 전복이며, 가족 구조에 새로운 '관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가족이데올로기를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기존 가족이데올로기를 참조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관계와 유리되어있다는 차원에서 한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손창섭이 지닌 동등한 주체의 근거는 도덕적 합리성에 있으며, 이는 선험적이며 절대적인 차원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폐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창섭의 『삼부녀』는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라는 자유의식의 형상화를 통해, 자유의식의 사회적 재생산과 소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문학이 사회적 소통의 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손창섭의 자유의식이 지닌 선구성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주제어: 자유, 가족이데올로기, 자유계약, 관계, 손창섭, 『삼부녀』

1. '자유의식'과 가족이데올로기

작품 속에 재현된 세계가 보여주는 자유의식[1]을 살펴보는 것은

1) 여기서 '자유의식'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개체적 혹은 집단적) 주체의 의식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어휘이다. 자유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주체의 의식의 바탕이 되거나 의식의 생산물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는 '자유'라는 개념이 단순한 합의와 더불어 항상 현재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여백을 가진 은유적 개념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조지 레이코프, 나익주 역,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 웅진지식하우스, 2010; 또한 자유 개념은 "삶의 관계 속에 깃들어"있는 생성적 관념이다. 이봉철, 『삶의 질서와 서구 자유주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2006; 마지막으로 자유 개념이 "~로부터의 자유"라는 상대성을 지닌 유동적 개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측면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고찰은 작품 속 자유 개념의 전유를 통해 당대의 자유 의식의 재생산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유 개념 및 자유의식을 현재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손창섭의 문학세계를 확인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는 1960~1970년대의 문학의 장 안에서 자신의 자유의식을 개성적으로 전유한 작가이기 때문이다.

손창섭은 1960년대 초부터 신문연재 장편소설로 창작의 방향을 선회하였다. 더불어 정치적 사유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의 연재소설을 통속성으로만 치우친 것으로 여겼으며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했다.[2] 하지만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60년대 이후 장편소설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손창섭의 문학세계를 총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외부성'을 통해 손창섭 문학세계를 조망하려는 연구[3], 월남작가로서 『사상계』와의 관계 속에서 손창섭 문학세계의 방향의 근원을 찾으려는 연구[4] 등은 손창섭 소설을 1950년대와의 연속성

이는 경제적 이념의 정치적 확장으로서의 '자유주의'와는 일정부분 차이를 갖는다. 여기서는 '자유주의'가 사회 구조에 작용하는 이념적 측면으로서의 개념이라면, 사회의 소통 속에서 개체로서의 공동체 구성원이 지닌 '자유'에 대한 관념을 '자유의식'이라는 말로 차별화하고자 한다.

2) 류동규는 1960년대 손창섭의 장편소설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에서 찾는다. 첫째, 동인지와 계간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론가들과 작가들은 신문연재 장편소설은 통속적이라 인식했다. 둘째, 손창섭의 60년대 장편소설들은 그의 전후소설적 면모를 벗어나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류동규, 「1960년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문화융합학회, 『문학과 언어』 31, 2009.

3) 방민호는 '외부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손창섭이 지닌 한국 사회에 대한 불편한 의식의 원인을 읽는다.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58, 2012.

4) 김진기는 월남작가로서의 손창섭과 『사상계』의 경향의 관계를 통해 반공

속에서 총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손창섭을 전후세대로서의 전후작가[5]로 가두지 않고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손창섭과 그의 작품을 평가하도록 한다.

손창섭은 1970년 『삼부녀』를 마지막으로 소설쓰기를 중단하고 3년 뒤인 1973년 말경 도일한다. 그 후 다시 2년여의 공백기를 갖고 1976년 『유맹』을 연재하게 된다. 이 공백기가 의미하는 것을 그의 문학적 의식과 연관 짓는다면, 『삼부녀』는 그의 문제의식과 심리적 상태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일 수 있다. 본고는 이에 착안하여 『삼부녀』의 서사 안에서 손창섭의 '자유의식'의 양상을 살펴보고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의 소설이 그려낸 가족서사는 한국 사회의 알레고리적 형상화라 볼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자유에 대한 사유가 있다. 말하자면 그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이 보여주는 가족서사는 경직되고 부패한 당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문임과 동시에 대안적 사고의 제시이기도 했다.

특히 그의 소설 『삼부녀』 속 가족서사는 가족이데올로기를 전유 하는 방식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가족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하여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새로운 '관계'의 인간을 보여주려는 의식이다. 자유의식은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주체가 어떠한 관계를 지향하느냐가 그 주체

주의와 국가 권력 하에서 손창섭의 문학세계가 통속성으로 선회한 원인을 고찰하고 있다. 김진기, 「손창섭 소설과 『사상계』」,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 제84집, 2013.

5) 한수영의 경우, 전후세대를 '식민화된 주체'로서 인식하고, 손창섭을 이중언어자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손창섭 전후소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한수영, 「전후소설에서의 식민화된 주체와 언어적 타자」,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52호, 2007, pp. 1-33. 이러한 확장적 이해에도 손창섭의 작품을 1950년대에 묶어놓는 것은 손창섭의 작품 전체를 아우르기 힘들다.

의 자유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인간관계의 장이 가족이라는 점에서, 손창섭의 가족에 대한 형상화가 보여주는 가족 관계의 양상은 손창섭이 지닌 자유의식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삼부녀』의 가족 재구성의 서사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 드러나는 '관계'의 의미를 손창섭이 지닌 '자유의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의 해체 및 재구성

『삼부녀』는 『주간여성』에 1969년 12월 30일을 시작으로 1970년 6월 24일까지 연재한 장편 연재소설이다. 이 소설은 중산층 이혼 가정 속 한 가장이 지닌 가족과 성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막장 드라마'[6]적 서사를 보여준다. 아내의 외도에 의해 이혼한 40대 후반의 가장 '강인구'는, 성인이 다 된 두 딸을 건사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쫓겨난 아내가 다시 서울에 나타난 것을 계기로, '삼부녀'의 가족 구조의 유지는 위기를 맞이한다. 결국 아내를 배제한 두 딸과의 가족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강인구'는 '삼부녀'의 가족을 해체하고 타인과 새로운 가족[7]을 구성한다. 이 과정 속에

---

6) 여기서 '막장 드라마'라는 표현은 막장 드라마적 서사의 구조를 도식화하는 독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삼부녀』가 흥미와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이는 역설적으로, 단순히 흥미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삼부녀』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강조의 의미이다.

7) '강인구'와 '보경', '보연'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가족을 '삼부녀'로 지칭하고, '강인구'가 '안경희', '김경미'와 함께 만든 가족을 '새로운 가족'이라고

드러나는 아내의 가족과의 외도, '강인구'의 원조교제, 친구의 딸까지 맡아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 등은 이 서사를 '막장드라마'적으로 만든다.

앞서 위기를 맞는 것이 가족 구조라고 말한 것은, '강인구'의 가정이 해체되는 배경 때문이다. 그의 가족이 이혼으로 일반적 형태를 벗어나 있는 것이, 그가 가족을 해체하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혼을 했다고 해도 아내 '영실'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두 딸들에 의해 '강인구'의 가족은 그 구조적 정당성을 시험받게 된다. 딸들에 의해 재결합을 종용받는 '강인구'는 현재의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결국 그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강인구'는 가족을 해체하기로 한다.

이혼이라는 현실적 상황은 기존 가족 구조가 지닌 폐쇄성의 모순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가족을 '혈연', '친자간의 애정'이라는 윤리적 차원의 근원을 지닌 완성된 구조로 여길 때, '이혼'이라는 상황은 이 완결성이 지닌 허구성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여기서 『삼부녀』의 전사에 '이혼'이라는 환경적 조건이 부여된 까닭을 확인할 수 있다. 손창섭은 당대 가족이데올로기의 폐쇄성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서사적 배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본시부터 그는 가정의 구성단위를 부부에 두고 있었다. 한 가정의 기본이 되는 기간요원은 부부뿐이다. 부부 이외의 가족, 즉 부모든 형제든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준 요원으로서의 임시가족에 불과한 것이다. (중략)
>
> ……그런 까닭에 한 가정의 모체는 어디까지나 부부요, 부부뿐이어야 한다.
>
> 이러한 가정관 내지 가족관과 주장을 지니고 있는 인구 씨인 만큼,

지칭하여 두 가족 구조를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가족'을 '삼부녀'라고 부르기에 힘들게 하는 '안경희'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 가정의 모체인 부부관계가 결렬되었을 때 이미 그에게는 가정은 없는 것이었다.(중략)[8]

결국 가족의 해체에 작용한 것은, '강인구'의 가족에 대한 사유이다. '부부관계'를 가족의 근본으로 여기는 가치관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혈연'을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드러낸다. "부부관계가 결렬되었을 때"에는 가정도 해체가 가능하다는 의식은 당대 한국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족중심주의에 대해 거부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인구'가 보여주는 사유의 배경에는 혈연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의식이 있다고 하겠다.

손창섭의 연재소설들은 가족중심주의가 지닌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부조리를 재고하여 형상화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소설 속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모습은 당대 일반적 가족 이미지에서 벗어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대 보편적 가족 이미지인 가부장 중심의 가족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소설은 흔들리고 해체되어 재구성되는 가족의 모습[9]을 보여준다.

가부장중심의 가족주의가 계급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당대 정부의 집권 이데올로기와 공모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손창섭이 보여주는 가족의 이미지가 기존 가부장적 가족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가족이데올로기를 확장시켜 집권 이데올로기로 삼은 정부의 정치적 이념의 구조적 허구성과 모순을 폭로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과 맞닿아 있다.

중요한 점은 『삼부녀』의 서사의 중심이 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

8) 손창섭, 『삼부녀』, 예옥, 2010, pp. 138-139.

9) 『여자의 전부』의 '미라'와 '미원'이나, 『부부』의 '차성일' 부부 및 '한박사' 부부, 『인간교실』의 '주인갑'의 부부관계의 모습 등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벗어나는 형태로 제시된다.

재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 작용하는 것은 혈연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 및 가족관계의 자율과 함께,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자유이다. '강인구'는 성적 욕망의 불충족을 22살의 여대생인 '안경희'와의 원조교제를 통해 해소하게 된다. 그는 젊은 육체와 이지적 성격을 지닌 '안경희'를 통해 '소년'이 된 것 같은 충만감을 느낀다.

'강인구'에게 아내와의 재결합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은 "흥미와 매력"이며, 이는 또한 그에게 남녀관계의 근본이다. 그에게 이미 "흥미와 매력"의 대상은 원조교제를 맺고 있는 '안경희'였으며, 이는 '안경희'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 '강인구'는 '안경희'와 죽은 친구의 딸인 '김경미'를 집으로 들이고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

> "일, 교제 기간은 오늘부터 육 개월로 한다. 단 기한 만료 후 쌍방에 이의가 없을 때 자동적으로 육 개월 연장된다. 이, 데이트 횟수는 주 일 회로 한다. 삼, 교제 기간 중 남자는 여자에게 매달 사만 원씩의 생활비를 선불로 하고, 별도로 학교의 등록금을 부담한다. 이상 틀림없죠?"
>
> "틀림없음!"[10]

> "추호도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성한 정당거래니까요."
>
> "신성하다니?"
>
> "정신을 팔아먹는 족속들, 즉 양심과 애국심과 도덕과 신앙을 팔아먹으며 지도자연하는 그따위 추잡한 위선자들에 비하면 정신을 깨끗이 보존하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단순히 썩어 없어질 육신만을 매매하는 우리의 행위야 얼마나 솔직하고 신성해요."[11]

---

10) 손창섭, 앞의 책, p. 93.

11) 같은 책, p. 134.

'강인구'에게 이 새로운 가족의 정당성은 '자유계약'에 있다. 그는 친구인 '계사장'에게 '안경희'를 소개받을 때부터 그녀와의 관계를 서로의 합의하에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는 '자유계약'을 통한 관계에 공감하는 '안경희'에 의해 유지된다. '안경희'는 사회 규율에 예속된 관계를 떠나 주체적 계약을 맺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이는 '안경희'가 '강인구'와 동등한 위치를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는 '강인구' 앞에서 '김경미' 역시 계약을 통해 가족구성원이 된다. '김경미' 역시 '안경희'와 마찬가지로 이 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자유 계약'이 새로운 가족의 정당성을 보장한다면, '자유계약'은 계약 주체 간의 동등성으로 보장된다.

> 그러나 차차 겪어볼수록 경희나 경미도 싹싹하고 살가운 데가 있는 데다 똑같이 기박한 소녀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요즘 와서는 도리어 동정심을 갖고 남 같지 않게 대했다. 물론 경희나 경미 쪽에서는 처음부터 식모 아주머니를 이 집의 늙은 고용인이라 해서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일 없이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해왔던 것이다.[12]

새롭게 탄생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얽매임 없이 개인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역시 계약 주체 간의 동등성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경희'의 "착실한 생활" 뿐만 아니라, '경미'의 "순화작용"에서도 드러난다. 새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삶의 충실함을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새로운 가족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삼부녀'에게는 외부인이었던 '식모 아주머니'까지 포함한 조화를 이루며 "일치된 호흡과 질서 속에서 조절되"[13]는 환경

12) 같은 책, p. 211.
13) 같은 책, p. 228.

을 조성하는 데에는 서로 간의 "인격적 대우"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내세워진다.

이를 통해 『삼부녀』의 새로운 가족의 세계가 보여주는 '자유의식'이 '자유계약'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체 간의 동등한 지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 속 새 가족에 형상화는, 주체들 간의 동등한 지위가 유지·보장되기 위해서, 주체들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3.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 그 잠재성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는 가족의 중심을 친자 간의 혈연으로 쉽게 치환하여 '혈연'을 가족의 핵심으로 만든다. 이러한 가족이데올로기 하에서는 가족이 일단 형성되고 나면 가족 구성원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주체의 지속적인 활동은 무화된다. 현재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주체적 활동 이전에 이미 선험적인 규율로서 가족의 윤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삼부녀』는 새로운 가족 만들기의 서사를 통해 혈연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자유계약'을 가족 구성의 원리로 삼는다. 가족의 중심을 '혈연'에서 '자유계약'으로 옮겨놓는 것은 가족 구조의 근본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는 주체의 가족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주[14]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

14) "주체의 자유란 바로 과정으로서의 분열증, 즉 수많은 상태들을 횡단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고 실현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과정의 계속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민음사, 2002, p. 185.

딸들과의 가족인 '삼부녀' 속의 '강인구'는 가장의 위치에 놓여 있다. 당대 가족이데올로기 하에서는 가장에게 경제적 의/책무뿐만 아니라 지위에 대한 책임도 강요된다. 가족의 대표로서 가장이 보여야 하는 위엄은 가부장 하의 권리 혹은 권력일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 부과된 억압일 수도 있다. 이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강인구'가 느끼는 해방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구 씨는 경희와 비슷한 시간에 집을 나갔다가는 퇴근하는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전처럼 주석이나 다방을 밤늦도록 헤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귀가하여 경희와 경미를 상대하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다. 딱딱한 아버지의 권위나 체면 따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다. 부녀간의 높다란 담 같은 것이 없는 것이다. 필요하면 아버지와 딸처럼 굴 수도 있지만 먼저는 그냥 남녀요, 친구요, 애인이었다.
>
> 그런 만큼 과도의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도덕적인 부담감 같은 것이 강요되지 않았다. 서로 계약 내용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소녀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활에 보람을 찾고 있는 모양이다.[15]

'강인구'는 아내가 없는 '삼부녀' 가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말해 딸들에게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딸들과의 거리감은 커져간다. 그러한 거리감에 의해 점차 그의 귀가가 늦어지게 된다. 딸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는 '강인구'가 가족으로부터 억압을 느끼고 있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삼부녀'가 해체되고 '안경희', '김경미'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후에 그는 해방감과 충족감을 느낀다. 이는 그가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 안의 역할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의 벗어남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가족 구성원의 '배치'의 변화이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배치'는 "계열화의 상태에 의해

15) 손창섭, 앞의 책, p. 217.

형성되는 사건"이다. '차이 없는 반복'으로 출현하는 '배치'는 권력을 보존하게 된다. '삼부녀' 가족은 '차이 없는' 가족적 삶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삼부녀'의 가족 구조에서 보존된 권력은 '강인구'를 억압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의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적 책임감을 넘어서 '아버지'라는 역할이 '강인구'를 딸들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위엄'있는 지위에 놓이게 하며, 딸들의 삶을 보장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게 한다.

이러한 권력은 배치의 변화를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 딸들 과 아버지의 연결이 타인과의 배치로 변화하였을 때, 강인구에게 억압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주가 '잠재'[16]적이 된다. 이는 새로운 가족 안에서의 '강인구'와 '안경희'의 관계를 살필 때 확인할 수 있다. '안경희'는 자신이 계약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강인구'와 관계를 맺고자 하며, '강인구'는 그녀를 '그냥 남녀', '친구', '애인'으로 여긴다. 말하자면 두 인물의 관계는 연속성을 전제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계약은 서로를 하나의 위치에 매어놓지 않고, 관계를 순간의 '강도(强度)적 사건'[17]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계약 관계의 주체들에게 탈주는 잠재적이게 된다. 언제든 다른 관계 혹은 관계의 청산이 가능한 관계가 된다.

여기서 혈연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가 '자유'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억압으로만 작동하기보

16) 들뢰즈가 말하는 잠재성(virtuality)은 현실에 부재한 가능성(possibility)과는 다른 것으로, 현재화된 것을 현행적(actuality)이라 할 때, 현행적 사건의 선험적 조건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현실성(reality)의 영역의 것을 말한다.

17) 들뢰즈는 감성적인 것의 지위를 논하기 위해 '외연적 크기'와 '강도적 크기'를 설명한다. '외연적'인 것이 연속성에 의해 종합되는 단일성으로 포착된다면, '강도적'인 것은 "순간적으로만" 포착된다. 이는 동일성에 의해 포섭되는 사실이 아닌 순수 잠재성으로 높인 '사건'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서동욱, 앞의 책, pp. 17-57 참조.

다는, 주체의 상징계적 삶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데올로기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현실을 수용하고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8] 라깡은 주체를 '소외된 주체'로서 설명하지만, 이는 대타자의 요구인 '아버지의 법'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해야만 주체로서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서 긍정적인 이데올로기를 세우는 것[19]이지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전면적 배제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부녀』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가족 만들기의 양상은 탈-이데올로기적이면서 재-이데올로기적이다. 이데올로기는 실정적 내용이 바뀌더라도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적인 것(누빔점)[20]을 갖는다. 기존의 가족이데올로기는 '혈연'을 중심에 놓고 동일성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혈연의 범주를 민족적으로 확장하려는 국가의 모의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삼부녀』는 이를 '자유계약'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데올로기로 치환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

18) 지젝은 라깡을 매개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정립하는데, 그에게 이데올로기는 주체가 상징적인 것의 세계를 현실로 살 수 있게 하며, 실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사회적) 존재의 '허위의식'이 아니라 존재가 '허위의식'에 의해 유지되는 한에서의 그 존재 자체이다."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p. 48.

19) 라깡에게서 소외된 주체는 진정한 주체가 아니다. "라깡은 소외된 욕망에서 유래하는 '병리적' 성격을 극복하고 진정한 주체로 탄생하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라깡은 타자에 의한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분리라고 부른다. 분리는 "욕망하고 향유하는 새로운 주체로의 탄생을 의미한다." 홍준기, 「자끄 라깡, 프로이트로의 복귀」, 『라깡의 재탄생』, 창비, 2009, p. 127 참조.

20)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에서 문제의 쟁점은 바로 어떤 '매듭'이, 어떤 누빔점이 부유하는 요소들을 일련의 등가적 관계 속에 포함시키고 총체화시키는가이다." 지젝, 위의 책, p. 156.

간의 '자유계약'을 통해 국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함의까지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자유계약'을 통해 주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손창섭은 『삼부녀』를 통해 막장드라마의 흥미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와 재구성의 가족 서사를 통해 가족이데올로기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를 보여준 것이다.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우선 자리해야한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억압하지 않고 주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이데올로기가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자리바꿈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손창섭이 '새로운 가족'을 형상화하기 위해 '자유계약'이라는 자율적 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려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손창섭의 『삼부녀』가 보여주는 가족 재구성의 서사는,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중심주의에 대한 상상적 전복의 시도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가족이데올로기 재구성의 회귀성

앞서 살펴본 바, 『삼부녀』는 손창섭의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재구성의 시도라고 하겠다.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은 초월적 도덕률을 배제하여 주체에게 선택의 위치를 점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에 대한 확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재구성이 긍정적인 자유의식의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이데올로기가 지닌 한계를 넘어서야만 한다. 손창섭의 구상이 과연 그러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자유계약'을 이루는 조건과 '자유계약'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의 관계 양상을 확인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최소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단위는 경제적 생산을 기반으로 한다. 현대사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 형성된다.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전근대적 관계와 결합시켜 착취구조를 가리게 된다. 그렇다면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 하 가족구조에서 생산의 몫을 분배할 수 있는 지위를 점하는 것이 가장이라고 할 때, 새로운 가족이데올로기를 통해 형성된 가족은 생산과 분배의 문제에 있어 새로운 양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강인구'의 새로운 가족은 여전히 '강인구'를 중심으로 한 생산 및 분배의 양상을 보여준다.

> 그러니 이런 흥정에 있어서 최저선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가는 미스 안에게 실망을 주고 거절을 당할 뿐 아니라 체면이 깎이게 된다. 적어도 초로에 든 사내가 젊은 아가씨와 사귀면서 쩨쩨하게 굴 수 없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인색하게 보이고 싶진 않단 말이다.[21]

>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친부녀 사이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아끼며 화목하게 산다. 1970년 2월 25일 강인구 안경희 김경미
>
> "자 이거면 되겠지. 우리 사이에 이 이상 더 필요한 계약서도 예약서도 필요 없을 거야. 경미 학빈 내가 대지. 그러니 여기에 각자 무인들이나 찍어요."[22]

'강인구'가 '안경희'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유계약'의 조건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다. 교제를 하면서 '안경희'가 '강인구'에게 느끼는 개방성과 합리성, 도덕성 등이 두 사람

---

21) 손창섭, 앞의 책, p. 79.
22) 같은 책, p. 214.

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고 결국 가족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지만, 대학생인 '안경희'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강인구'가 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더불어 친구의 딸인 '경미'를 가족으로 들여 학비를 대어주고 생활을 돌보는 것은 역시 '강인구'의 몫이다. 결국 새로운 가족 형태를 '자유계약'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강인구'의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유계약'이라는 관념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자체에 손창섭의 설정의 한계성이 있지는 않다. '자유'의 관념을 지탱하는 큰 축 중 하나가 '자유 시장경제'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 구성을 이끄는 '자유계약'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계약 주체 간의 동등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볼만 하다. 이는 기존의 가족이데올로기가 지닌 생산 및 분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에서 『삼부녀』의 '자유계약'으로서의 가족이데올로기가 한계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경미'의 경우, 이러한 사정은 또 다른 한계점을 시사한다. '김경미'는 주색잡기로 일관하다가 비명횡사한 아버지 '김창갑'에 의해 상처입고 술집작부로 전락한 여성이다. '강인구'는 친구 '창갑'의 유언대로 '경미'의 후견인임을 자처하지만, '김경미'는 남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강인구'의 의도를 곡해하게 한다. 이 비판적 시각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남성의 지위에 '강인구'를 놓고 그를 유혹한다.

그러나 '강인구'는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김경미'를 물리면서 그녀를 계도하는 데에 성공한다. 일견 '강인구'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듯한 이 과정에서, '강인구'의 '김경미'에 대한 역할은 '아버지'에 다름 아니다. 그는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거부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그녀를 학교로 돌려보내려 한다. 말하자면 '자유계약'에 의해 형성된 가족 내에서 '강인구'는 '그냥 남녀', '친구', '애인'이 된 기분을 느끼지만 실상 '김경미'에게 그는 그녀가 꿈꾸

던 올바른 아버지일 뿐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김경미'의 심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강인구'의 주체적인 활동이라는 점이 또한 기존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귀성을 보여준다. 주색잡기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김경미'의 아버지 '김창갑'은 회한이 남는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하고, 아버지에게 버려져 술집 작부가 된 딸 '김경미'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만을 가진 채 살아간다. 반면 '안경희'와 자유계약을 맺고 계약에 대한 합리적 자세를 지켜나가는 '강인구'는 '김경미'의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 이 부분은 주체 간 동등성을 보여주는 '자유계약'이라 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강인구'가 이 계약을 통해 지켜낸 것이 기존 가족이데올로기 상의 아버지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강인구'는 '김창갑'이 실추한 아버지의 지위를 다시 복권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강인구'의 새로운 가족은 가족이데올로기에 '자유계약'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세우며 형성되었지만, 그 양상은 가장의 경제적 책임까지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가족이데올로기의 구조를 답습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인구가 자리한 구성원 간의 위치가 재화의 분배를 담당하는 자리이며, 관계상 아버지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는 더욱 명료하다.

더불어 '강인구'의 삶은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소 설은 '강인구'가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림에도 불구하고, '강인구'는 크게 부족함 없이 친딸들과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들의 모든 경제적 요구들을 해결한다. 이것은 '강인구'의 가족서사가 경제적 조건들과는 유리된 환경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경제적 여건의 현실성이 배제된 '자유계약'에 대한 옹호는 일종의 유산계급적 환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적 차원의 경제적 여건을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강인구’가 보여준 ‘자유계약’은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주체 간의 관계는 ‘자유계약’이라는 베일 속 ‘계급투쟁’에 달려있다,[23] 말하자면 『삼부녀』의 서사 속에서 주체 간의 동등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유계약’ 이외에 자본주의적 관계가 청산되거나 변화의 실마리만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인구’가 새로운 가족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관계에 대한 일종의 무시이거나 통찰의 부재이다.

레이코프의 ‘자유’에 대한 고찰은, ‘자유’가 은유적이며 프레임을 근거로 한 개념[24]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손창섭이 보여준 ‘강인구’의 ‘자유계약’으로서의 관계에서 오는 ‘자유’는, 현실에 근거한 경제적 관념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형성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식’은 ‘자유’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일상의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경제적 여건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프레임이 공유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인구’의 가족 재구성의 서사는 기존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을 통해 ‘자유’를 확장적으로 사유하는 시도였으며, 기존 가족이데올로기에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가족이데올로기를 참조하고 있다는 점과, 합의 가능한 프레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 가족이데올로기의 완전한 탈피나 대안적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제시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삼부녀』의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이데올로기

23) 마르크스적 시각에서 자본주의는 자본/임노동의 관계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 구조 하의 가치형태는 계급투쟁의 산물이다. 박승호, 『좌파 현대자본주의론의 비판적 재구성』, 한울, 2015 참조.

24) 조지 레이코프, 앞의 책, p. 53.

는 근본적으로는 차이를 생산하지 못했으며, 서사 속에 나타난 기존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탈주는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잠재적인 것으로서만 머문다.

5. 손창섭의 도덕적 합리성과, 자유의식

손창섭이 『삼부녀』에서 시도한 가족이데올로기의 탈-재구성의 기획은, 그의 '자유의식'이 한국사회의 기존 관계를 탈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작품은 '강인구'에게 초점화하여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에 대한 사유를 서술하고 있다. 더불어 이 작품은 소재적 측면에서는 '막장드라마'적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인물의 성격적 형상화에 있어서는 합리성에 의한 도덕성[25]이 유지되고 있다.

'강인구'는 아내와의 재결합을 요구하는 딸들, 변하지 않은 아내 와 갈등을 겪지만 그들의 관점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는 큰딸 '보경'과 아내 '영실'의 비난이나, '김경미'의 남성 혐오의 이유, '안경희'의 한국사회에 대한 혐오를 인정한다. 비난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보다는 각자의 시각이 존중되어야 함을 견지하는 인물이다.

더불어 그의 도덕성은 '자유계약'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지켜진다. 그는 '안경희', '김경미'와 함께 혼탕을 하면서도 "추호도 추잡

25) 여기서 도덕성이라고 할 때는 기존 사회의 윤리적 규범을 기준으로 한 도덕성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 도덕성은 '자유계약'의 조건을 벗어나지 않으며, 그 전제인 주체 간 동등성을 철저하게 견지한다는 계약 실천 주체로서의 자세를 지칭하고자 사용한 용어이다. 말하자면 손창섭이 내건 '자유계약'의 주체에게는 선험적으로 주체 간 동등성 등의 실천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인물이다. '안경희'와도 계약대로 일주일에 한 번 외출을 통해 성관계를 맺을 뿐이다.

이러한 '강인구'의 모습은 『삼부녀』의 세계가 단순한 규율을 벗어나는 흥미에 국한된 막장드라마가 아님을 알려준다. 오히려 손창섭의 개인사적 배경을 드러냄[26]과 동시에, '자유계약'을 통한 새로운 관계의 선결 조건이 주체 간의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이를 도덕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손창섭의 인식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점에서 『삼부녀』의 서사에서는, 이 동등성에 대한 인식이 선험적인 위상을 지니게 된다. 이는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강인구'가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 시일이 흐름에 따라 강인구 씨를 중심으로 한 안경희와 김경미의 유례없는 공동생활은 차츰 자리가 잡혀갔다. 이들 세 사람의 계약가족은 단순히 혈통적이요 인습적이기만 했던 재래의 가족사에 도전하여, 적어도 새로운 가족제도의 가능성을 혹은 개연성을 제시해주는 것이기도 하다.[27]

> 순간 택시에서 내리는 인구 씨와 구부인 영실의 시선이 마주쳤다. 영실은 일시 놀라는 눈치더니 이내 자랑스럽게 웃었다. 웃는 얼굴대로 영실은 떠나가버렸다.
>
> "고마워요, 아빠."
>
> 보경이 다가와서 반가워해주었다. 보연의 모습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인구 씨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거리며, 보경이와 경희와 경미

---

26) 공종구는 손창섭 소설의 여성인물들의 형상화 양상을 통해, 손창섭의 소설 속 "윤리적 근본주의자"적 인물이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죄의식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공종구,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레스와 가족주의」,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012, pp. 12-16.

27) 손창섭, 앞의 책, p. 216.

를 향해 활짝 웃었다.[28]

더불어 『삼부녀』는 이 새로운 가족을 자랑스러운 시도로 만들고, 이상적인 화해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갈등의 축을 담당하던 '삼부녀'와 '아내'는, 모두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며 서로 화해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적 결말은 이 작품에 반영한 '자유계약'과 주체 간의 동등성을 이상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여겨진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미화는 『삼부녀』의 서사의 배경이 되는 사유에, 주체 간의 동등성이 단순히 '자유계약'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에 대한 고찰이 부재함을 알려준다.

손창섭이 한국 사회 내에서 "고독한 회의론자"[29]로서 한국 사회의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를 드러냈다면, '자유계약'을 중심에 놓은 『삼부녀』의 서사는 손창섭이 생각하는 합리성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합리성은 작품 속 '안경희'가 드러내는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3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한국사회를 "추잡한 위선자"들로 가득한 사회로, 한국 남자들을 "순결"라는 기호로 여성을 억압하는 허위의식을 지닌 존재들로 인식하며 비판한다. 이것이 작가의 의식이라는 점에서 위선과 허위의 대립으로 드러나는 "정신적 순결이나 진실성"은 손창섭의 합리성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자유계약'을 보장하는 주체 간의 동등성은, '정신적' 가치로서의 '진실성'에 의해 지탱될 때 "신성"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결국 손창섭의 합리성은 정신적 위상을 지닌다고 볼

28) 위의 책, p. 241.

29) 방민호, 「해설 : '막장 드라마'의 이면」, 『삼부녀』, 예옥, pp. 250-255.

30) 방민호는 "이러한 경희의 존재가 한국사회와 풍토의 외부에 서 있는 작가적 존재를 시사해 준다"고 말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습적 사고방식을 못 견뎌 했"던 것으로 설명한다. 방민호 위의 글, p. 253.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안경희'의 한국 사회 및 한국 남자에 대한 비판이 대립항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 사회"와 "미국 남자"인데, 이 대립항은 미국을 경제적·정신적 표본으로 인식하려는 당대 '경제 엘리트'[31]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선진과 후진의 대립항으로 한국 사회를 파악하는 의식은 자기혐오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삼부녀』에 나타나는 합리성은 주체 간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차원에서 강조되기에 앞서, 정신적인 것으로서 도덕의 위상을 지닌다. 이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이'로서의 세계와 만나기보다 옳고 그름의 판단 잣대 앞에 세계를 세우는 시선일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사회를 열등성으로 포착하고 있는 시선 또한 이에 대한 혐의를 지울 수 없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삼부녀』는 탈-이데올로기적이며, 재-이데올로기적인 서사 구성을 통해 당대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의 상상적 전복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관계의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족이데올로기에 부여하는 것으로 가부장적으로 경직된 한국의 가족이데올로기에 일침을 던지는 창조적 행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중심을 이루는 '자유계약'으로서의 관계 의식은 주체 간의 동등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손창섭의 자유의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이데올로기의 해체 및 재구축은 기존 가족이데올로기를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가족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제시라고 말하기는 힘들

---

31) 황병주는 60년대 미국 시찰단의 미국표상을 통해 엘리트 지식인의 미국에 대한 정신적 선망의 의식을 "옥시덴탈리즘으로의 단순 전도"였다고 설명한다. 황병주, 「1960년대 경제 엘리트의 진보와 주체 인식」,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3집, 2014.

다. 또한 당대가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프레임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기는 힘든 '자유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유의식'의 문학적 형상화에 있어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의 상상적 재현으로서의 문학은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작용한다. 사회가 '자유' 개념이 지닌 여백을 지속적 합의를 통해 채워나갈 때, 문학을 통한 '자유의식' 재현은 적절한 프레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32]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형상화를 통한 이데올로기 해체 및 구성은 문학의 소통적 기능을 강화한다.

1973년 도일하기 3년 전 연재한 작품인 『삼부녀』가 한국 사회 내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지니는 '자유계약'의 의미는 손창섭 문학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외부자로서 작가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비판 및 시사를 하고자 한 의식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좌절 혹은 혐오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손창섭의 '자유의식'의 총제적 면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창섭의 작품세계 전반과 손창섭의 삶의 양상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부녀』를 통해 그의 '자유의식'을 한정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은 더욱 확장적 연구를

32) 이는 재현을 소통구조로 사유한 리쾨르의 시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리쾨르는 작품의 재현을 삼중의 미메시스의 나선적 순환 구조라 말하며, 이 구조를 전-형상화(미메시스Ⅰ), 형상화(미메시스Ⅱ), 재-형상화(미메시스Ⅲ)로 설명한다. 전-형상화(미메시스Ⅰ)는 '전-이해'로서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에 공유되는 인식론적 배경을 의미하며, 이는 형상화(미메시스Ⅱ)를 매개로 재-형상화(미메시스Ⅲ)로 이어지고 다시 미메시스Ⅰ을 이루는 순환구조를 지닌다. 이 순환구조가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은 형상화가 그 사회의 인식론적 배경을 형성하는 데에 적절하게 기여한다는 의미가 된다. 폴 리쾨르, 김한식·이경래 역,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지성사, 1999.

요한다. 이후 더 넓은 시각에서 손창섭의 '자유의식'이 다양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손창섭, 『삼부녀』, 예옥, 2010.

2. 논문

공종구,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주의」,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012. 8, pp. 9-34.
김진기, 「손창섭 소설과 『사상계』」, 『한국언어문학』 제84집, 한국언어문학회, 2013, pp. 327-364.
류동규, 「1960년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문화융합학회, 『문학과 언어』 31, 2009, pp. 185-206.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58, 2012, pp. 197-228.
방민호, 「해설 : '막장 드라마'의 이면」, 『삼부녀』, 예옥, 2010, pp. 242-255.
한수영, 「전후소설에서의 식민화된 주체와 언어적 타자」,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52호, 2007, pp 1-33.
황병주, 「1960년대 경제 엘리트의 진보와 주체 인식」,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3집, 2014, pp. 105-149.
홍준기, 「자끄 라깡, 프로이트로의 복귀」, 『라깡의 재탄생』, 창비, 2009, pp. 15-141.

3. 단행본

박승호, 『좌파 현대자본주의론의 비판적 재구성』, 한울, 2015.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민음사, 2002.
이봉철, 『삶의 질서와 서구 자유주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2006.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조지 레이코프, 나익주 역,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 웅진지식하우스, 2010.
폴 리쾨르, 김한식・이경래 역,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지성사, 1999.

(**투고일**: 2015. 11.15 **심사완료일**: 2015. 12.9 **게재확정일**: 2015. 12.11)

김세준
소속: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현대문학 전공
주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44바길 7-5 1층
전화번호: 010-2234-1467
전자우편: beastsj@naver.com

[Abstract]

Reconstruction of Family Ideology through Liberty of Contract

- Focusing on Son, Chang-seop's Novel, 『Three Father and Daughter』 -

Kim, Se-Jun

Son, Chang-seop's appropriation of family ideology displays the his consciousness of liberty and especially 『Three Father and Daughter』 shows the writer's critical mind towards the Korean society well. Considering that consciousness of liberty is revealed in the aspects of 'relationship' that the subjects show, it is possible to look into the structure and condition of liberty consciousness that Son, Chang-seop had, by analyzing the aspects of human relationship embodied by him. Family relationship of 『Three Father and Daughter』 consists of dissolution and reconstruction and it is conditioned on 'contract of liberty'. This is an imaginary subversion of the existing family ideology and an attempt to form a new family ideology by introducing a new 'relationship' to a family structure.

However, this attempt has a limitation, since it is based on the existing family ideology and isolated from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hips. Besides, moral rationality is the base of the equal subject, which Son, Chang-seop had and this is closed, as this acquires a transcendental and absolute dimension.

Nevertheless, Son, Chang-seop's 『Three Father and Daughter』 has significance by embodying consciousness of liberty through reconstruction of family ideology and offering an implication for social reproduction of liberty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on.

Key words: Liberty, Family Ideology, Contract of Liberty, Relationship, Son, Chang-sop, 『Three Father and Daughter』